

광주 관광업계 “무안공항 폐쇄, 매출 손실액 300억”

문체부-지역 여행업계 간담회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요구 종사자 2000명 생계 위협 받아 6월까지 여행 예약률 0% ‘위기’ 대출금 상환유예·기금 지원 요청

광주 관광업계가 정부에 무안공항 폐쇄에 따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형 여행사를 제외한 중·소여행사들의 피해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며 참사 특별법 피해업종 포함과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등 세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용자지원과 함께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20여명은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무안공항 폐쇄에 따른 광주 관내 여행사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지원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체부 관계자와 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지원책은 △특별법 피해업종에 포함 △여행사 직원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무안공항 전세기 업체 대상 저금리 대출 △영세 여행사 손실 보전 △관

광진행개발기금 지원 △무안공항 재운항 날짜 확정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등 8가지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직접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과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선석현 비대위원장은 “참사를 기리기 위해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며 미디어 노출을 안하고 있었다”며 “광주공항을 한 시적으로나마 국제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요구는 관광객 감소로 인해 고사 직전에 내몰리는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광주 관광업계의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형 여행사를 제외한 광주 관내 137개 여행사들의 예약취소 건수는 1800건에 이르고, 매출 손실액은 3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또 기타 여행 관련업 종사자 약 2000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광주지역 전세기 업체 4곳은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이사는 “광주 여행업계의 주 이용 공항은 결국 무안공항이었다”라며 “사고 이후 5, 6월까지 여행 예약률이 0%다”고 말했다.

광주 여행사 한 종사자도 “관광업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1, 2월의 피해상황만 보면서 말하고 있다. 올 한해까지 매출 제

로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사 대표들은 직원 해고 등의 불안정한 고용의 우려도 표명했다.

한 대형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 때 이미 많은 직원들이 업계를 떠났다”면서 “짧게 봐도 2년 이상의 경력 직원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무안공항이 재개항 한다 해서 정상화는 어렵다. 참사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우선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열고, 무안공항 이름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중앙부처 일이 금방되지 않는다. 여러 부분을 국도

부장관과 논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무안공항 재개항은 8월로 예상되는데, 광주공항의 국제공항 한시적 전환도 그 정도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국이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강력히 개선하겠다”며 “기금 융자금이라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정월대보름 앞두고 어린이 부럼깨기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11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 부럼깨기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상의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적 개항” 촉구

“무안공항 폐쇄로 2만명 여행 취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위해 필요”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여행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의 한시적 개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운영이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중단이 예정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여행·항공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무안공항 폐쇄로 겨울방학 등 여행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560개 업체에서 약 2만명의 여행 취소와 3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으며 폐쇄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업계의 피해 또한 확산돼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과 지역 내 여행업계 전반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상의는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이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인권도시포

럼 등 국제행사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해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단의 광주·전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면서 “무안공항의 폐쇄로 대체 이용할 공항이 지역 내 없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제 행사의 성공개최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공항은 지난 2008년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기 전 일본, 동남아, 중국 등에 대한 정기편을 운항한 경험이 있으며 활주로 길이도 2835m에 달하는 등 국제선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국제선 임시 취항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권범 기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상가 돌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7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인근 상가 건물 1층 PC방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와 동승자 B씨는 도주했으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사고로 PC방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행방을 추적했고, A씨는 11일 오후 12시53분께 충남 예산 자택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던 이들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출입국외국인관리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